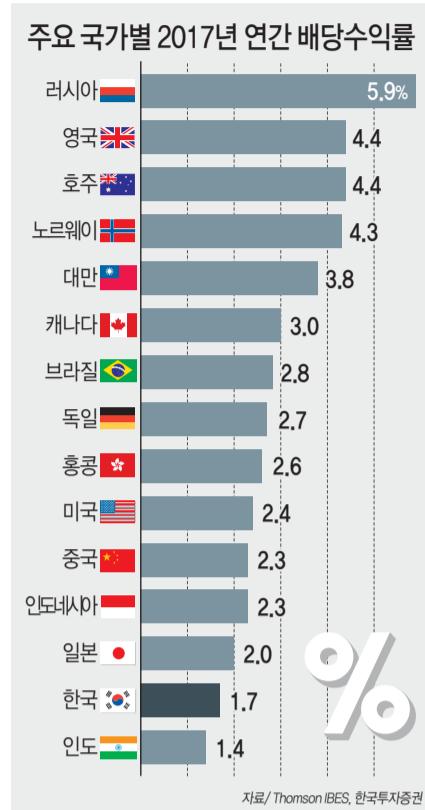


3분기 중간배당 받으려면 오늘 주식 사야… 지금이 투자 적기

<21일>



상장사 현금배당 32조 '사상 최대'

연말배당 노려 우량종목 찾기 급급

10년간 9월 고배당 투자 수익률↑

“절대 돈을 잊지 마라.”

가치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입버릇처럼 한 말이다. 그만큼 투자의 대가(大家)도 투자자금에 대한 손실 리스크를 경계했다는 얘기다.

증권가도 연말 배당을 노리고 일찌감치 우량종목을 찾는 투자자로 술렁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오락가락 하자 가치투자와 방어주 성격의 배당주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특히 올해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좋아 배당주가 주목받을 가능성 이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미래에셋대우와 KTB투자증권 등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현금 배당액은 31조~32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KTB투자증권은 “금리 정체 국면과 경기둔화 국면에서는 전통적으로 배당주가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코스피의 현금배당 수익률은 2.3%에 근접하며 시장금리 수준인 1.9%를 웃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유명간 연구원은 “배당주 성과는 시장 금리와 연관성이 높다. 시장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배당주가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배당주가 강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2016년 하반기 이후 배당주가 부진했다. 올해도 코스피 고배당50, 배당성장50 지수는 코스피보다 각각 3.7%포인트, 6.0%포인트 밀들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배당에 우호적이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 현재 국고채 3년 금리는

1.99%대 수준으로 코스피 배당수익률 2.4%보다 낮다.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배당투자 적기다.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의 월간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매년 9~12월 가운데 9월에 고배당주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 기간 평균 코스피 수익률은 3%포인트 웃돌았다. 특히 2010년 이후 수익률을 살펴보면, 배당수익률을 활용한 투자는 4분기 중 특히 10월에 성적이 좋았다.

국민연금 등 기관의 배당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지난 7월 국민연금이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인 주주제안권 활용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고려하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SG투자를 비롯한 책임투자가 중요 화두로 등장하겠지만 중

장기 접근이 필요하고, 수익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기금의 우선적 선택지가 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 유태호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인 주주제안권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하반기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제도 도입 방향은 합리적인 개선 명분과 즉각적인 기대수익률 개선이 예상되는 ‘배당’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포스코, SK텔레콤,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포스코대우, GS홈쇼핑, 무림P&P, 대신증권을 실적 호전 배당주로 꼽고 있다.

한편 3분기 중간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9월 30일)이 휴일로 21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개인이 15억 초과주문땐 증권사가 경고

30억 이상 주문땐 결제 보류

앞으로 개인투자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문을 내는 경우 증권사는 경고메시지를 내야 한다. 30억원 이상 주문 시 결제는 보류된다. 기준 30억원 초과 주문 시 경고, 60억원 이상은 주문 보류를 할 수 있는 규제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법인의 경우 경고메시지가 뜨는 결제액은 30억 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고, 주문 보류 기준은 기존 60억원을 유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 위한 모범규준’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증권사 매매 거래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금투협 산하 자율규제위원회와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6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고 지난 4개 월동안 논의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해외주식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해외주식에 대해서 금투협회 모범규준이 적용되지 않아 대량 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주식 매매시스템의 자동화와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의 화면을 분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증권 사태와 같이 팻 핑거(fat-finger·단순한 주문실수)를 사전에 예

방하기 위해서다.

삼성증권 사태는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한 화면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어 직원이 현금을 주식으로 잘못 배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이후 배당화면을 분할하는 등 시스템 개선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증권사 자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강화된 모범규준이 마련돼 금융투자업계가 한 단계 더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팻 핑거와 같은 거래 실수는 다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은 이날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최병길 전 신한BNPP자산운용 대표를 선임했다. 자율규제위원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투협 회원사의 자율규제 규정 위반행위와 관련한 조사와 자율제재, 분쟁 조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동안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 경험이 없는 관직 출신들이 맡으면서 이를바 ‘낙하산 자리’라는 논란을 키웠다. 이에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성 회복을 중점 사안으로 삼은 만큼 자율규제위원장직을 비상근직으로, 자율규제위원 중 1명을 기준 금융 전문가에서 업계 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이번 정관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페이’ 일평균 1174억 결제… 2배 늘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각종 ‘OO페이’의 이용건수와 금액이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하루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실적은 362만7000건, 1174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각각 26.0%, 17.4% 증가했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 OTP 없이 비밀번호나 지문만 입력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신종 전자지급 서비스다. 간편결제 이용건수는 지난해 2분기 187만2000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이는 유통·제조회사가 제공하는 오프라인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체 이용건수 중 유통·제조회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에서 77.8%에 달하는 282만1000건이 결제됐다.

같은 기간 하루평균 간편송금서비스 이용 실적은 132만건, 91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5.5%, 19.0% 증가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 기기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다. /김희주 기자

이용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5665억원 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유통·제조회사가 제공하는 오프라인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체 이용건수 중 유통·제조회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에서 77.8%

하나은행 ‘髭 먹고 알먹고 알뜰살뜰’ 이벤트



KEB 하나은행은 2000만 회원을 보유한 롯데닷컴과 제휴를 맺고 ‘髭 먹고 알먹고 알뜰살뜰’ 이벤트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롯데닷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손님을 대상으로 롯데닷컴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20% 할인 쿠폰 등 쇼핑 쿠폰 6종을 제

공한다. 롯데닷컴을 통해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KEB 하나은행의 웹기반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인 모바일브랜치를 통하여, 앱 설치나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도 없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입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마련은 물론 적금의 기능까지 고루 갖추어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또한 연령,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열린 통장이다. /김문호 기자